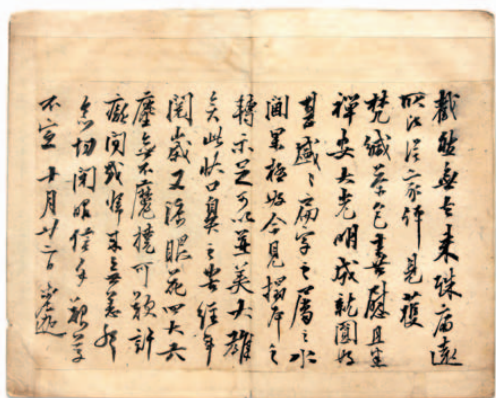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는 제주 유배지에서 일취월장된 불교의 식견이나 의문이 일어나면 일일이 초의에게 물었다. 청에서 간행된 신간 불서가 제주로 도착하면 여김없이 초의에게 알려 함께 증명하자는 청을 보내기도 하였다. 초의 또한 그랬다. 자신의 신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언제나 추사에게 상의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추사의 편지에서 종종 확인된다. <완강전집>(여초의)24신과 <벽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초의가 대광명전을 신축한 후, "대광명전"이란 편액 글씨를 신관호(1810~1884:후일 신현으로 개명)에게 부탁하였고, 이 편액 글씨를 추사에게 보내 하나하나 점검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또 <벽해타운첩>의 편지 말미에 10월22일이라 하였기에 이 편지를 쓴 월일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해는 언제일까. 그 단서는 "입과 코의 고통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이고, 또 눈마저 눈곱이 낀다"고 한 것이나 허 소치의 안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추사의 입과 콧병은 1843년 겨울에 발병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그가 1844년 3월 10일 집으로 보낸 편지에 "나는 설창과 비식으로 여전히 고생하면서 5~6개월을 끌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그가 "입과 코의 고통이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라는 사실에서 이 편지는 그가 입과 콧병으로 고생했던 시기인 1847년경에 쓴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추사는 허 소치가 돌아간 후 그의 안부를 물었는데, 소치가 제주를 떠난 것은 1847년이었다. 따라서 이 편지는 1847년 10월 22일 초의에게 보낸 편지인 셈이다. 이 편지를 살펴보자.

자른 듯 왕래가 없어 멀리에서 몹시 궁금하던

마에 휘둘리는 사대육진 한탄



<벽해타운첩>

불교관한 의문들 초의에게 일일이 물어 초의도 신변 대소사 추사에게 물어 신관호의 편액 글씨 추사에게 점검

차에 우리 집 하인으로부터 스님의 편지와 차 꾸러미를 받으니 반갑고도 위안이 됩니다. 더구나 스님은 수행이 안정되고 매우 밝고 성취도 원만하고 좋으니 매우 잘했습니다. 편액의 글자를 신현 수사(水使)에게 부탁했다니 결말이 매우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답본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글씨)아름다움이 대웅전과 나란히 할 만합니다. 입과 코의 고통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이고, 또 눈마저 눈곱이 낀다. 사대육진이 마에 휘둘리지 않음이 없으니 한탄할 뿐입니다. 허 소치가 그 사이 돌아가서 별 탈은 없지요. 생각이 간절합니다. 반가워서 손이 가는 대로 간단히 적었

습니다. 이만...노가(截然無去來 殊庸遠溯 卽從家 伴見獲梵 椀茶包喜慰 且悉禪安大光明 成就圓好 甚盛感 扁字之屬之水 果極好 今見楮本之轉示 足可以 美大雄矣 口鼻之苦經年閱歲 又添眼花 四大六塵無不魔撓可歎 許痴間或歸來無恙耶 念切 開眼信手撰草 不宣 老迦)

추사는 초의의 안부가 궁금했던 듯, "자른 듯 왕래가 없어 멀리에서 몹시 궁금하던 차에" 뜻밖 에 초의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입과 콧병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던 추사였으니 그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초의의 차와 편지였다. 아울러 초의의 수행 소식은 추사에게도 "매우 밝고 성취도 원만하고 좋으니 매우 잘 된" 즐거운 소식이었다. 초의는 추사의 제주 유배 초기, 그의 해배를 서원(誓願)하여 대광명전을 건립했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후원한 인물은 신관호이다. 따라서 그가 쓴 대광명전 편액에는 글자마다 이들의 정성스런 서원이 담겨진 것이라 하겠다. 초의는 대광명전을 건립한 후, 조석(朝夕)으로 추사의 무사안녕을 빌었으리라. 한편 추사가 "(글씨)아름다움이 대웅전과 나란히 할 만하"라고 한 신관호의 한묵(翰墨)은 지금도 묵묵히 대광명전을 지키고 있다. 최근 대광명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의가 1841년에 쓴 상량문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1851년 윤치영이 쓴 <대광명전신건기>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대광명전의 건립시기 문제는 뒤로 미룬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어려서 듣는 찬불가, 확실한 불자 만드는 일”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종만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 생명 축복의 날. 오늘은 기쁜 날 님께서 오신 날. 별담은 새벽이슬 연꽃이 피는 날. 한줄기 햇살이 온 세상 빛이 되어 노래하리.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진리의 합성이 온 누리 퍼지네. 환희의 노래로 온 누리 퍼지네.”

국민 찬불가 '오늘은 좋은 날' 찬바람이 들락거리기 시작한 가을의 문턱에서 국민 찬불가의 작곡가 이종만(55)을 만났다. 사무실 창가에 기타 하나가 서있다. 마주 앉은 그의 시선 끝에는 그동안 그가 발표했던 찬불가와 찬불동요 음반이 뿔뿔이 쪼개져 있고, 벽면엔 '붓다 콘서트'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1996년부터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자신을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 달라고 했고, 기사에 그렇게 적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그의 이름 뒤에는 수식어가 많았다. '이종만'을 한 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는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뮤지션이다. 특히 '찬불동요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어떻게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일까.

“개구쟁이 우리 스님 살금살금 다가와서 귤가에 입을 대고 어쭈하고 소리쳐요. 깜짝 놀라 돌아보면 메롱 째롱 놀리지만 스님 얼굴 바라보다 슬그머니 웃음짓죠. 개구쟁이 우리 스님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깨를 툭치고는 검지손가락 갖다 대요. 화가 나서 돌아보면 혀 내밀며 약 울려서 스님 모습 바라보며 까르르 웃고 말죠.”

시련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답답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때였다. 그는 친구를 따라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여름 캠프를 따라가게 된다. 캠프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노래는 자신이 한 2, 3년 전에 만들어준 '개구쟁이 스님'이란 노래였다.

“그때 곡을 써주지만 했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들어 보진 못했는데, 캠프를 같이 가서 처음 아이들이 부르는 곡을 처음 듣게 되었죠. 합주만 지도교사를 했을 때 받았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찬불가'란 거창한 생각보다도 '동요'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런 음악도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이란 생각에 답답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던 저로서는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절이 훗날 제가 찬불가를 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꺼진 불

그는 대중가수를 꿈꾸고 있었다. 길을 모색하던 20대 초반, 그는 포크 음악을 하는 동아리 형태의 그룹 '참새를 태운 잠수함'에 합류하게 된다. 그는 그룹 내 선배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으며 꿈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주목받기 시작했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젊은 음악인은 세상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종만'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는 대한민국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1980년 초였다. 모든 것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시기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아리 활동이 여법하지 못하게 됐다. 첫 번째 시련이었다.

“늘 환하게 쬐여 있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불이 갑자기 꺼진 것 같았죠. 그 때는 모든 게 다 잘될 것 같았고,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것도 몰랐던 애송이였던 것인데, 자신을 몰랐던 거죠. 음악적으로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갑자기 꺼진 인생의 불빛.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처음 써 본 찬불동요

방황이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부탁으로 서울 조계사 어린이법회 내 '어린이 합주단'의 지도교사를 맡게 된다. 약 50명 규모의 어린이 연주단이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에게 어린이 합주단은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다. 일단 음악 속에 있을 수 있었다. 말(馬)이 없던 기수에게 작은 말이 하나 생긴 것이다.

아이들의 음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며, 아이들의 서툴지만 때 묻지 않은 음악 속에 있을 수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신이 나서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거든요.”

그는 그렇게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 음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음악의 처음으로 돌아간 그는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된다. 약 한 달 동안 어린이 합주단을 지도해주고 그는 다시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던 어느 날, 조계사 어린이 법회 관계자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게 된다. 노랫말이 있으니 곡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어린이를 위한 찬불가였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찬불동요를 작곡하게 된다.

조계사어린이합주단 인연 후 찬불가 접해

1986년 '이종만과 자유인'으로 정식 데뷔
1995년 첫 찬불동요집 발표...36집 발표
찬불가 40여 곡 발표 중 자작곡 100여 곡
연등축제 찬불가 작곡, 회향한마당 기획
“방송에서 찬불가 많이 들어줬으면...”
“찬불가는 사경·염불·독경과 같은 것”

이른 행복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는 1986년 '이종만과 자유인'이란 그룹으로 1집 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를 발표한다. 1집 앨범이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음반이 발매되고 약 1년이 지나서다.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그의 노래는 198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공전의 '히트'를 한다. 20대 중반, 그는 이른 나이에 뮤지션으로서 성공한다. 대중의 사랑은 달콤했고,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너무도 방황한 '조 건'을 필요로 했다. 또한 그 사랑이 만든 조명도 영원하지 않았다. 대중의 마음속에 섰던 그의 이름은 차츰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를 비추던 조명도 꺼져가기 시작했다. 이른 나이에 뮤지션으로서 성공을 맛보았던 그는 갑자기 다가온 어둠 속에서 당황했고, 또 한 번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른 어둠

이른 나이에 성공의 행복을 경험했던 그는 이른 나이에 어둠의 시간을 맞는다. 1990년대 초 3집 앨범을 끝으로 그의 이름은 대중들로부터 멀어진다. 또 다시 어두워진 시간. '인기'를 먹고, 밝은 조명 속에서 살았던 젊은 뮤지션이 견디어 내기엔 힘든 시간이었다. 그동안



그는 2010년부터 뉴트리팜소스코스트라의 상임지휘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40여문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교당리 473-2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 서비스] 검색 - 114도움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검색

주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율리 643번지 전화_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 :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이종만은 ...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9년 포크 음악 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으로 활동을 시작해 1986년 그룹 '이종만과 자유인'으로 1집 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를 발표했다. 2집 '신사와 청바지', 3집 '나의 선택'을 발표했고, 2002년 4집 '종로 아저씨'를 발표했다. 1996년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를 만들어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두 차례의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향원문 화상을 수상했다. 2010년부터는 뉴트리팝소악제와 상임지휘와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연등축제 회향한마당 기획과 각 사찰의 산신음악회 기획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연등축제의 노래 '오늘은 좋은 날'과 '길 떠나자',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음악이 생의 전부'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등이 있다.

안 대중이 가져갔던 이름 '이종만' 하지만 더 이상 대중이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찾아온 자신의 낯선 이름. 나는 누구인가? 로 방향은 시작된다. "힘든 시간이었죠.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 할까요. 김민기나 한돌 같은 선배들이 가는 길도 멋있어 보였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매일매일 반짝이는 후배들이 가는 길도 부러웠죠. 다른 사람들의 길만 보이고 나의 길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이었죠."

첫 찬불 동요집

또 다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는 '어린이 이름 불교학교'에 참석하게 된다. 불교학교에서 돌아온 후 그는 어린이 율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율동에 필요한 음악을 녹음해 주게 된다. 카세트 테이프에 직접 기타연주를 하며 찬불가를 녹음하고 있던 그들에게 제 때로 된 사운드 찬불가를 녹음해준 것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교사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찬불가가 이렇게 신나는 것인 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찬불가의 맛을 본 어린이 법회 관계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찬불 동요로 음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10년 전 조계사 어린이 합주단을 할 때가 생각났어요. 힘들 때 들었던 아이들의 음악. 그리고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제 노래가 떠올랐어요. 얼마 후 음반을 냈죠. 첫 찬불동요집이죠."

1995년 그의 첫 번째 동요집은 그렇게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풍경소리'라는 이름으로 현재 36집까지 발표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풍경소리'를 통해 발표된 찬불동요는 약 400여 곡에 이르고 그 중 그가 작곡한 곡은 약 100여 곡에 이른다.

그는 풍경소리 10집이 나온 2000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한 찬불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부처님 오신날'은 그때 만들어진 노래다. 그리고 그는 연등축제의 피날레인 '회향한마당'을 봉축위원회와 합

계 10년째 기획해 오고 있다.

"노래 좀 들려주세요"

그는 2012년 7월부터 '붓다 콘서트'를 월 1회 진행해 오고 있다. 자신이 만든 노래를 비롯한 찬불가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동안 그와 '풍경소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해온 그가 바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찬불가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언론에서 좀 더 간접하게 소개해주고, 방송에서 많이 들려달라는 것이다. 대중이 찬불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 찬불가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무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무대가 '붓다콘서트'인 것이다.

"음악의 힘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생 형성에 대단히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부처님, 부처님'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매일 찬불가 들으면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한 불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불동요'라는 말 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찬불가', '어린이 찬불가'라고 하고 싶어요. 어린이 찬불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요를 비롯한 모든 찬불가가 존재하는 의미는 '불교' 안에 있는 여러 수행과 수행의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을 하는 일이나 염불을 하는 일, 경전을 읽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는 벌써 내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해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종만.' 이제 그의 이름 석 자는 공든 '탑'이고, 그의 어깨엔 무너질 수 없는 업적이 쌓였다. 그는 "이제 전역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풍경소리' 36집 CD에 한참을 머물고 있는 그의 시선에서 그의 업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글 · 사진=박재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그는 2007년 두차례 개인콘서트를 여는 등 대중가수로서의 활동도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다.

전법일기

개구쟁이들과 백홍암 가는 길 위에서

영어 담마 캠프(5)

아이들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집에서 한창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깨우면 곧잘 일어난다. 졸리운 눈을 비비면서도 거뜬히 일어나는 녀석들이 기특하다. 하지만 오늘 개구쟁이 강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이 깨워도, 스님이 깨워도, 친구들이 깨워도 모르는 채 자고 있다. 포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설법전으로 갔다. 여섯분의 스님들이 맨 앞에 가사장삼을 수하고 예불을 이끌어 가느라 어린아이들도 목청껏 큰 소리로 예불을 올린다. 예불이 끝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혜윤이가 "스님 얘가 괴롭혀요" 한다. "아니, 새벽부터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도대체 누구야?" 생각하며 보니 강주다. "강주! 너 언제왔니?" 그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녀석이 어느새 와 웃고 있다. 교사들 모두는 웃음보가 터졌다. 개구쟁이들은 귀엽다.

오늘은 아침부터 백홍암 산행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일찍 아침을 먹고 모여 얼굴에 재피임을 붙였다. 벌레를 아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다. 숲속을 걸다가 날라리가 눈에 들어와서 고생을 했다는 아이들은 숲속을 걷는 것을 두려워한다. 요즘 아이들은 절에 오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벌레 때문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속에서 움직이는 곤충들을 거의 본적이 없는 아이들은 여지 한 마리만 방에 들어와도 난리가 난다. 재피임을 부치면 모에 날라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지혜를 한 봉사자가 귀뜸해줬다. 우리는 인디언처럼 얼굴에 재피임을 한껏 붙이고 출발을 하였다. 한창 더운 날씨지만 여름 숲은 그들이 많아서 인지 그리 덥



그림 · 박구원

지 않았다. 백홍암은 얼마 전 '길 위에서'라는 다큐로 많이 알려져 있다. 아이들에게 나의 은사스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내가 스님이 된 곳이라고 했더니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이다. 1시간이나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 군데군데 물을 마시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걸어서 올라갔으나 저학년 중 몸이 약한 아이들은 차로 이동을 하였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난리가 났다.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겨우 설득은 했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이 이해는 간다.

백홍암은 선방이고 지금은 안겨중이다. 아주 조용히 해야 한다. 우리들의 시끄러움으로 스님들의 고요를 깰 수는 없다. 조용조용할 것을 몇 번을 당부하고 백홍암 도랑에 들어섰다. 대웅전으로 향하

는 길에 있는 선방에는 20여 명의 스님들이 곧고도 당당한 자세로 앉아계신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발걸음을 조용조용히 하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개구쟁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우리도 대웅전을 참배하고 넓은 보화루에 조용히 앉아 잠시 명상에 들었다. 곧 죽비소리가 나고 방선시간이 되자 은사스님께서 나오셨다. 모두 3배를 드리고 "여러분 저의 은사스님이셔요.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쭙주세요. 무엇이든지 좋아요"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든다. 과연 아이들은 무엇이 궁금할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 자우 스님 말씀 많이 퍼왔어요?" 은사스님께서 웃으시며 "애들은 스님에게 관심이 많나 봐" 하신다. 다음 질문도 재미있다. "자우 스님 야단 많이 맞았어요?", "스님 핸드폰 있어요?", "스님으로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하루 몇시간 참선하세요?", "왜 출가하셨어요?"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정성스럽게 준비 해주신 수박을 먹고, 물을 한병 받아 내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서로 빨리 가겠다고 숲속을 달린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설문지에 백홍암 산행이 가장 힘들었다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부모님 없이 혼자 힘으로 한 산행이라 힘들었지만 아이들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머물면 좋겠다. 푸른 산과 아름다운 꽃들, 좌선하시던 스님들로.



자우 스님(버려져나국제선원 선원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종교 불경계에 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훑고 잡귀를 물리쳐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머울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볼링장,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 삼재 조심

2013년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목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올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

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려며 지급 금액도 평생 날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